01 교회소식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맞춤형 날씨 속에 주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했던 아동주일학교 주최 '2019 여름성경학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팔복' 시리즈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벗어 버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4)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고 교회들도 더욱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

04 간증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선천성 폐렴에 걸려 죽어가던 조카가 손수건 기도로 살아난 파키스탄 샤킬 순두 성도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박명금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901호 2019년 8월 1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했어요!"

어린이들의 천국잔치 '2019 여름성경학교'

지난 7월 28일(일)부터 30일(화)까지, 아동주일학교(교장 장성식 목사) 주최 '2019 여름성경학교'가 구미, 대전, 마산, 속초, 전주, 천안 등 지교회에서도 참석한 가운데 '부활의 영광'(롬 8:18)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첫날 개강예배 시 강사 이수진 목사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효성(초등3) 어린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더욱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둘째 날, 강사 이미영 목사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이 더해지는 은혜를 받았다. 셋째 날에는 예능위원회 솔리스트 서승원 집사와 크리스탈싱어즈의 충만한 인도로 '해피 프레이즈'가 진행되었는데,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 밖에도 조혁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하늘보기'를 비롯해 유아, 유치, 학년별로 인형극 관람, 도전골든벨, 과학놀이, 말씀퀴즈 골든벨, 간증의 시간, 미니올림픽, 창조와 과학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연합활동으로 이뤄진 『주님의 자취를 따라… 천로역정』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십자가를 직접 져보고 가시면류관을 만져보며 주님의 사랑을 되새겼다.

구미만민교회 김채환(초등4) 어린이는 "저는 팔이 부러졌을 때나 감기로 아팠을 때 당회장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치료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번 여름성경학교 천로역정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아픔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장 장성식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름성경학교 첫째 날부터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리 비를 내려 기온을 낮춰주셨고, 두터운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주시며 선선한 바람을 불어주시는 등 좋은 날씨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도교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행사를 기획하고 소품까지 준비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셨지요. 무엇보다 아동들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행복해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 마태복음 5:3~1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나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기에는 선하게 산다 해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두 허물과 죄투성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롬 3:10).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요일 3:15 ; 마 5:28). 미움이나 음욕, 탐심, 교만, 거짓, 질투, 혈기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진정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오로지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1. 참된 복의 여섯 번째 관문 :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淸潔)의 사전적인 의미는 '맑고 깨끗함'으로서 일반적으로 '탐욕이 없고 품행이 바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지식과 교양이 있어 겉으로만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아와 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묻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맞추어 엄격히 자신을 절제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에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정해 놓은 장로의 유전 중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시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지요. 심지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마 23:27).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도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말씀하시며 소년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2.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투고 혈기 내던 사람이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만하던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합니다(살전 5:22 ; 히 12:4). 우리가 마음의 죄와 악을 깨달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진리로 채워가는 만큼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청결함은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롬 7:22~24).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전 4:5)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능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행해 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며 때를 좇아 금식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결국 모든 죄를 벗어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오로지 한 길을 가게 됩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자녀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동고동락하였습니다(룻 1:16~17). 그 결과 룻은 부요하고 선한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윗 왕의 증조모로서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등 진정 복 있는 여인이 되었지요.

3.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요 1:18 ; 삿 13:22).

반면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출 20:18~19). 이뿐 아니라 창세기 5장 21~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삶 전체를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동행한다'는 것과 '함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천사를 보내 지켜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만, 에녹처럼 온전히 죄를 벗어 버리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대면해 보기도 하며 동행하기까지 하신 것일까요? 요한삼서 1장 11절에 "…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있지만 죄악으로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올릴 만큼 마음에 죄가 없는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볼 수 있었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누구나 사랑하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성결되었느냐에 따라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이 다르고 천국의 처소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 자신의 삶 속에 간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렘 29:12~13).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막 영접해서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데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마음의 청결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해도 이룬 정도만큼, 곧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받는 것이지요.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방언이나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고전 12:4~11).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음의 악을 벗어 버리며 신속하게 성결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여섯 번째 관문을 통과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안의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벗어 버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만사형통함을 입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8 >>>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다(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굳건히 서가는 이스라엘 교회

2007년 7월 25일, 교회 개척 25주년을 맞아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재록 목사는 이후 예루살렘을 거쳐 최남단 에일랏까지 여섯 차례를 방문하여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말씀을 확증하였다.

교회 개척 26주년을 맞는 2008년 7월에는 이스라엘 7차 방문이 시작되었다. 7월 26일 오전에는 하이파에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오후에는 텔아비브에서 '선악과를 두신 섭리'를 주제로 집회가 있었다. 영적인 말씀 후에는 권능의 역사가 따르니 선교 회차를 더할수록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믿음이 굳건해져 갔으며 교회들도 반석 위에 서갔다.

✦

2008년 10월, 8차 방문 시에는 이스라엘 최북단 나하리야에서 세 교회 연합집회가 있었으며, 이어 아쉬도트만민교회 새 성전 입당 집회가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과 목회자 연합을 위해 독립된 단체를 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이다. 이는 7차 방문 시 목회자들 사이에 논의된 것이 더욱 구체화되어 조직의 명칭을 '크리스탈포럼'(Crystal Forum)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선교에 특심이 있는 총 6명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크리스탈포럼 조직이 준비되어 갔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된 정통 유대인 가족과의 만남도 있었다.

* 1, 2, 3차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

하나님께서는 2009년 10월, 교회 창립 27주년을 앞두고(위 사진) 6월까지 세 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해 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9월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개최하도록 축복하셨다.

2009년 2월, 이스라엘 9차 방문 시 이재록 목사는 하데라에서 집회를 한 후, 아쉬도트만민교회에서 120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제는 '권능을 받으려면'이었다.

그해 4월에는 10차 방문이 있었는데, 나사렛 생영교회에서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2차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때 유명 복음 가수인 드미트리 페트롭스키 목사의 아내 카테리나가 악성 림프종양을 치료받고자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이후 그녀의 질병은 빠르게 호전되었으며,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뒤 6월에 있었던 11차 이스라엘 방문에서는 예루살렘 영광의 왕교회 새 성전 확장 기념 집회 후, 인발 호텔에서 3차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다. 이재록 목사는 세미나에서 난해 구절 풀이와 영의 세계를 전했는데, 이를 계기로 참석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 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크리스탈포럼' 형성 및 정부 고위급 만남

열한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 선교 사역 중 감격스러운 것 중 하나는 10차 방문 시 이스라엘 목회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크리스탈포럼'이 결성되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무실 오픈식을 갖게 된 일이다.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향후 이 조직을 통해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비롯하여 찬양 페스티벌, 부부 세미나, 청소년 캠프 등 매년 다양한 활동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확장시키겠다는 비전과 열정에 감동을 받은 이재록 목사는 정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크리스탈포럼을 통해 힘을 얻고 활발한 사역을 이뤄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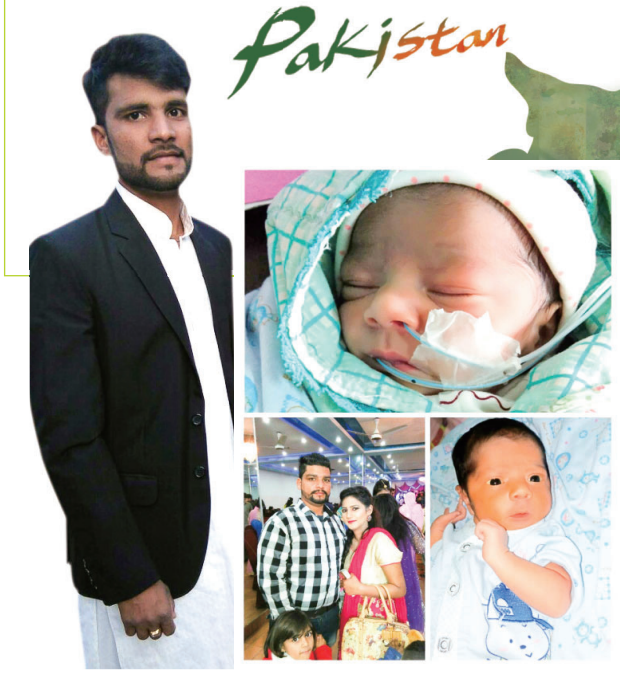
특히 11차 이스라엘 방문에서는 정부 고위급과의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중 힐릭 바르씨는 승진을 위해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이후 연속으로 승진의 축복을 받아 예루살렘 시 공무원에서 부시장을 거쳐 노동당사무총장, 국회의원, 국회부의장까지 이르렀다.

✦

이처럼 이재록 목사는 2007년 7월부터 총 22번의 집회, 3번의 목회자 세미나, 10여 차례의 목회자 모임을 가졌다. 이후 2009년 9월에는 크리스탈포럼 주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강사로 초청받아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10월에는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아 크리스탈포럼 조직위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선천성 폐렴으로 살 가망이 없던 조카가 살아났습니다!”

샤킬 순두 성도 (26세, 파키스탄 라호르)



▲ 처제 가족과 치료받은 조카

저는 약 5년 전부터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와 이삭 TV(파키스탄 기독방송)에 나오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 가족은 많은 복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

지난 6월 29일(토)의 일입니다. 처제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조기 양막 파열’로 인해 상행성 감염이 되어 ‘선천성 폐렴’에 걸려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는 호흡소리가 좋지 않았고 끙끙거렸으며, ‘말단 청색증’(산소공급 부족으로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한 색을 나타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집중치료를 위해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자 의사는 처제를 불러 “이제 가망이 없으니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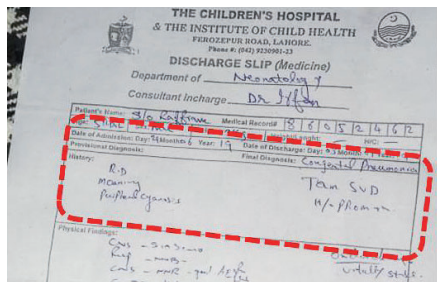
처제는 그동안 이삭 TV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오며 믿음을 키워왔기에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아기가 곧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제 대신 제가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지요.

✦

7월 2일(화), SNS를 통해 교제해 오던 만민중앙교회 이상원 장로님에게 ‘아기의 목숨을 살려 달라’는 간절하고도 긴급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기도 요청을 한 바로 그날, 이수진 목사님이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준 뒤 아기의 호흡이 정상이 되었고, 이내 피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날인 7월 3일(수), 아기는 바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의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병원 의무기록지



▲ **기도받기 전 :** 조기 양막 파열에 인한 선천성 폐렴으로 말단 청색증과 끙끙거림 소견이 보임.

박명금 집사 (58세, 1대대 5교구)

“은혜 잊지 않고 충성하니 제 삶 속에 간증이 넘쳐요”

사업 실패로 절망 끝에 섰을 때, 새 출발을 결심하고 상경해 정착한 곳이 구로동이었습니다. 2005년 만민중앙교회로 인도받은 저는 당시 중증 허리디스크로 기어 다니다시피 살았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고 치료되었습니다. 그 뒤 저는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를 쉬지 않았지요.

✦

2009년, 하나님께서는 치과 기공소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후 당회장님 기도로 오십견까지 치료받자 남편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가 있긴 있구나’ 하며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요.

2011년에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는 축복도 이어져 주님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형통한 평안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이고 급여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민망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어 구역장 사명을 더 뜨겁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하던 중,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구역장으로서 심방에 동행하며 구역예배와 화요지역기도회조차 빠지지 않았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일감이 들어와 오히려 예전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2018년 말, 저는 교회적인 연단 속에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것과 느슨해진 마음을 회개하면서 2019년에는 더욱 마음을 다잡아 충성하며 변화되기 위해 성경 정독과 말씀 무장에 힘썼습니다.

✦

그러던 5월 말, 일터에서 염산을 포함한 산성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던 중 약품이 제 얼굴과 양 눈으로 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과 따가움으로 눈을 뜰 수 없었고 계속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눈에 대고, 휴대폰으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 눈을 쉬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잠을 청했는데, 꿈에 당회장님을 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에 충혈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고 이물감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심한 허리 통증으로 걷지 못할 때에도 자동응답서비스(ARS)에 담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싹 사라져 남편도 너무 놀라워했지요.

이처럼 제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